

10週年을 맞는 環境保全協會

— 거듭나는 姿勢로 跳躍을 —

최신철 / 환경청 공보관

“環境保全에 관한 調查研究, 技術開發, 啓蒙事業 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를 둔다”는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1978年 設立當時 公害防止協會)가 어언 10週年을 맞게 되었다.

우리의 속담에 “10年이면 江山도 變한다”고 하였는데 지난 10年間 協會가 걸어온 길은 매마른 荒無地를 일구어온 農夫의 보람처럼 많은 發展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10年の 年輪 속에는 우리社會가 안고 있었던 가난과 빈곤의 탈에서 벗어나 開發과 成長이란 至上命題를 성취하려는 몸부림과 成長의 뒤안에 外面되었던 環境問題가 점차 社會的 關心事로 高潮된 이른바 “開發과 保全의 갈등”이 교차되던 時期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商工人들로 주축이된 民間團體로서의 協會가 추진한 많은 사업이 팔목할만큼 눈부신 성과를 거둔 점은 우리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과가 擧揚된 이면에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協會를 이끌어온 임직원들의 숨은 努力과 協會의 제반활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한 會員社들의 環境保全意識과 熱意가 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協會가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環境保全에 대한 對國民弘報活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들 수 있다. 이러한 弘報活動은 環境問題에 대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企業人, 國民, 社會各界에서의 종래의 認識 즉, 環境保全에는 많은 投資가 所要된다는 점, 短期的으로는 解決하기 어렵다는 점, 公害防止施設은 生産費와는 관계없는 課外費用이라는 점 등 環境保全에 대한 理解가 全無했던 認識을 되바꾸는데 큰 몫을 하였다 할 수 있다.

이처럼 社會 各界 各層에 環境問題에 대한 관심과 意識變化를 가져다 주도록 先導的 역할을 담당한 協會의 努力은 우리 環境史에 오래도록 기억될 일이라 생각된다. 周知하시듯 環境保全問題는 政府의 독자적인 힘이나 行政力만으로는 解決하기 힘든 일이다. 政府와 企業과 國民이 三位一體가 되어 推進하는 것이 가장 좋은 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인바, 政府가 아무리 강한 意志를 편다하여도 企業과 國民이 同參하지 않는 한 環境問題의 해결은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국민 각자의 環境汚染問題는 “個人이 汚染原因者이면서 被害者”라는 認識을 함께 하는 것이 重要한 문제가 된다.

한편, 企業人도 廢水나 産業쓰레기를 “우리



會社가 버리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는
認識보다는 “우리 會社만은 반드시 防止施設을
통해서 철저히 처리한다”는 責任意識이 있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國民이 環境保全에 認
識을 같이하고 同參하도록 함과 아울러 環境에
대한 바른 倫理觀이 確立되도록 啓導하며 기여했
던 점은 높이 評價하고 싶다.

具體的 例로 環境保全汎國民運動 展開, 各種
캠페인, 세미나, 강연회, 環境保全 名譽會員制
組織, 寫眞展示會, 文藝作品, 論文, 標語, 포스터
현상공모, 弘報館 설치, 刊行物 發刊, 公益廣告
放送 실시, 生産製品的 啓導文 표시 등 실질적
이며 구체적인 분야에서 추진해 온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言及하고 싶은 것은 급속한 經濟成
長과 더불어 모든 產業이 尖端技術 開發에 눈을
들리는 시점에 우리의 힘으로 環境技術立國의
意志를 키우기 위하여 環境保全에 관한 防止技
術의 開發促進 및 優秀機器 보급을 위한 努力으
로 國際環境汚染防止機器 展示會 (INPOCO) 를
10회나 개최한 事例는 매우 보람된 일이다.

이와함께 국내 환경기술분야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파악하여 會員社에 보급함으로써 環境保
全관련 기술개발 및 向上에 기여한 점도 빼놓
을 수 없다.

세번째로 保全協會가 排出業所 會員社를 대상
으로 전개한 防止施設에 대한 技術支援은 防止
施設의 經濟的이고도 効率的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 매년 1만
7천여명의 環境要員教育生을 양성시키는 등 적
극적인 事業推進에 努力해 온 것도 기록될만한
일이다.

이처럼 協會가 걸어온 10年의 발자취는 나름
대로 돋보이는 실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舉論하고자 하는 것은 協會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課題를 조속히 매듭지음으로
써 協會設立의 당초 理想이 實現될 수 있는 것
인바 이를 토대로 거듭되는 姿勢로 새로운 跳躍
을 위한 轉機를 마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協會가 推進하고 있는 諸般活動이 그 성
격상 公益性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뒷받침 해주는 구성원인 會員이 任意的 加
入이라는 규정으로 會員確保에 진전을 갖지 못
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로 인한 運營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면 全體 排出施設 設置許可業體
나 防止施設業體가 法定加入토록 制度化를 서둘
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점은 保全協會
가 갖고있는 그 特性을 고려할 때, 環境保全協
會가 加入된 會員의 利益만을 擁護하는 團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政府가 環境保全
行政을 効率的으로 추진하고 環境保全運動을 汎
國民的으로 擴散시킴에 있어서 民間團體의 形成
과 育成이 必要했던만큼 協會는 보다 차원높은
使命感으로 自力에 의한 環境保全弘報에 앞장설
수 있는 姿勢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은 汚染者
負擔原則의 論理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로 받아
들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協會는
會員의 權益과 保護라는 단순한 側面을 탈피하
여 모든 國民의 편에서서 國土의 汚染防止와 국
민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事業推進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며 이것이 企業이 갖는 社會的 責任
과 倫理에도 일치되는 일일 것이다.

그밖에 全國적으로 2萬餘名에 달하는 環境保
全名譽會員의 運營에 있어서도 보다 合理的인
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環境保全名
譽會員이야말로 地域社會의 훌륭한 弘報要員인
바 꾸준한 刊行物의 配布, 강연, 세미나 招請,
위촉장발급등 긴밀한 접촉을 기함으로써 소기
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環境保全協會가 맞이하는 10周年은 어떤 면
에서는 우리의 環境史를 되돌아 보는 거울과 같
아 보람과 意義가 크다 할 것인바 냉철한 自己
육성과 함께 새里程標를 尙해 希望찬 跳躍을 模
索하는 轉機가 되기를 期待하고 싶다. *